

“백발의 삶이 책으로”...‘곡성 어르신 이야기’ 큰 울림

22명 생애 기록 출판기념회 개최

올해로 9년째 200여명 구술 채록

“한 시대 살아낸 기록...곡성의 자산”

곡성 어르신들이 걸어온 삶의 흔적을 담은 목소리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1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군민회관에서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 출판기념회가 개최됐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어르신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이고 그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곡성군은 2017년 전국 최초로 어르신 인생을 구술집으로 엮는 사업을 시작해 올해로 9년째를 맞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출판기념회가 열리면서 다시 한번 행복을 선사해 주목을 받았다.



최근 곡성군민회관에서 열린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구술집 출판기념회에서 조상래 곡성군수, 구술 참여 어르신 등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군은 매년 읍·면별로 2명씩 선정해 지금까지 200여명의 생애사를 기록했으며, 단순한 삶의 체록을 넘어 지역 생활문화·역사·공동체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고유 문화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출판기념회에는 조상래 군수와 부인 주경희 여사, 강덕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심

정섭 곡성군노인회장, 방현용 농협곡성군지부장, 곡성향교 조희용 전교, 곡성군노인회 전승길 부회장과 고영길 노인대학장, 11개 읍·면 노인회장 및 읍면장, 집필을 총괄한 곡성일보 김래성 대표, 정영우 논설위원, 구술 참여자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식전행사와 개회식 ▲경과보고 ▲

주인공 어르신 영상 상영 ▲발간사 ▲축사 ▲답사 ▲어르신 토크 ▲구술집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구술집 참여자는 총 22명으로 인생 후반에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신의 행복감을 높여준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를 보고 한 걸음이환한 미소와 감회 깊은 소감을 전했다.

임면에 거주하는 이점래 (101·여)씨는 “백발이 성성하니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자리에도 오보고 고맙소”라며 “글고 오래 살아, 나라 못할 일 시키요~ 미안하요~”라고 말해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7남매 중 장남인데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한 집에서 아버지와 동생들까지 10명이 살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다”며 “어려운 시절도 보람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 볼 수 있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조상래 군수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낸 기록이고 곡성의 정신이 담긴 자산이다”며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곡성군은 ‘곡성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가 돼 다음 세대에 삶의 방향과 용기를 주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술집 출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보성군 “갯내음 가득한 꼬막의 계절이 돌아왔다”

21-23일 ‘제21회 벌교꼬막축제’

벌교천변 일원...체험·공연 다채

갯내음 가득한 꼬막을 맛볼 수 있는 제21회 벌교꼬막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벌교천변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벌교꼬막축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꼬막과 소של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다.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 전시회, 벌교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운영된다.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행사 시작을 알리는 농악 길놀이와 꼬막추적밥 1천인분 만들기, 꼬막 청소년예술제, 개막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개막식은 MBC 가요페스트와 연계해 나태주, 미스김, 마이진 등 20여 명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17주년

행사를 비롯해 ‘꼬

막이야기 오케스

트라’ 공연 ‘아리

랑과 함께하는

꼬막음악회’ 무

대가 펼쳐진다.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가수 박

지현, 보성군립국악단,

민성아 등이 출연한 축하공

연에 이어 화려한 불꽃쇼로 피날레

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소של 태백산맥 무대 등

반, ‘우리 국악 한마당’,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다채로운 프로그



램이 진행된다.

김길두 추진위원장은

“벌교꼬막을 전

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지

역을 넘어 전

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

객의 방문을 바

다”고 말했다.

한편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

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로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붉고 도

톰하여 육질이 쫄깃하면서도 단맛을 자랑한다.

/보성=임병연 기자

섬진강수달생태공원에 수달 2마리 입주

구례군 생태관광 명소화 속도

구례군은 17일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이 최근 천연기념물 수달 2마리(사진)를 들여오며 생태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식은 강원 화천 한국수달보호협회와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박사 연구진이 참여해 진행됐다.

두 기관은 증식·복원 기술과 과학적 사육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서식지 외 보전과 개체 안



개원, 2024년 4월 수해 복구 완료 등 단계적 정비

를 거치며 기반을 갖춰 왔다.

올해 10월에는 수달 입식 현상 허가를 마무리

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2020년 4월 조성됐으나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2022년 임시 개원, 2024년 4월 수해 복구 완료 등 단계적 정비를 거치며 기반을 갖춰 왔다.

올해 10월에는 수달 입식 현상 허가를 마무리

했고, 지난해 9월 민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해 뒤 지난해 15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입식 준비에 착수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달 입식으로 공원의 상징성과 생태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마련하고 생태공원이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은 트리어전망대, 카페수달, 사계절 꽃정원,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며, 흥매화 1천500그루를 비롯해 툄림·수선화·백일홍 등 10여종의 계절꽃이 식재돼 사계절 내내 색다른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순천시, 근대 기독교 선교유적 체계적 보존

市, 선교유적協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세계유산 등재·매산등 문화공간 논의

순천시는 17일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근대 기독교 선교유적 협의회 자문단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자문단은 순천의 근대 기독교 선교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구성됐다.

자문위원은 유산 소유자와 관계자와 지역 교계 인사, 관련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12명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은 앞으로 전국 8개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기독교 선교유적 체계적 세계유산 등재 방향은 물론, 매산등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근현대문화공간 조성 방향 등을 논의하며 지역사회

와의 협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져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근대 기독교 유산은 단순한 종교유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 근대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학문적 전

문성과 현장 경험이 결합된 실질적인 보존·활용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은 1933년 미국 남장로교 순천선교부가 세워진 이후 선교사 활동과 지역 근대화가 병행된 도시로, 매산등 일대에는 선교사 가옥, 병원, 교회 등 지역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유산이 남아 있다. /순천=정기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 현안 사업 지원 요청

여야 의원 면담...국비·특교세 협력 당부

담양군은 “정철원 담양군수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김재원·신장식·정춘생 의원을 잇달아 만나 담양군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방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정 군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에게 ▲하천 설계기준 개선 ▲가동보 전환 ▲퇴적토 재활용 규제 완화 ▲피해지도 제작 등을 건의했으며, ▲클린하우스 설치 ▲농



어촌도로 307호선 배수개선사업 ▲K-마스터 엑스포 개최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관광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정철원 군수는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겨울밤 달구는 ‘동요·캐럴 콘서트’ 열린다

27일 고흥군립중앙도서관서

오늘부터 참가자 80명 모집

고흥군은 17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문화공연 ‘동요·캐럴 콘서트’의 참여 관객을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마미바를 중심으로 글로켄슈필, 카혼 드럼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타악기 연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모두 다 꽃이야 ▲루돌프 사슴코 등의 동요·캐럴을 색다른 편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 중에는 관객이 직접 악기를 만지고 연주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아이들

과 가족 모두가 타악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고흥군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hlilb.go.kr>)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18~25일까지이며, 공연은 27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에서 60분간 진행된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고흥군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 (061-830-635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타악기의 흥미로운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석경 기자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더하기 이벤트

내달 15일까지 네이버페이 지급

답례품도...참여 분위기 확산 기대

장흥군은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사랑 나누고, 혜택 더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 동안 장흥군에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55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한다.

추첨 규모는 1만원권 50명, 5천원권 500명으로 당첨자에게는 결과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작은 기부가 지역 발전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장흥=노형록 기자